

한국인 상악 전치의 색 측정

전혜경

(고려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보철과 (악구강기능회복학과))

본 연구는 한국인 상악 전치 색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Vita Lumin Vaccum shade guide를 이용하여 한국인 상악 전치 색상을 선택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고안되었다. 960개의 상악 전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대 360개, 30대 300개, 40대 300개를 측정하였다. 10년 이상의 경력의 3명의 치과 의사가 비색법(visual shade selection)으로 동의하는 Vita shade를 선택한 후,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Shade Eye EX Chroma Meter의 측정치중 Vita Shade 정보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후 위치별, 남녀성별, 연령별 차를 측정치를 분류하고, 부가적인 명도, 채도의 측정 결과와 같이 SAS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Vita Shade로 160명의 한국인 960개의 상악 전치의 색을 측정후 위치별, 남녀성별, 연령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위치별 전치 색은 상악 중절치는 대부분 A1, A2, A3, A3.5 범위에 있었고, 측절치는 대부분 A2, A3, A3.5 범위 안에 있었고, 상악 견치는 대부분 A3, A3.5, A4범위 안에 있었다.

2. 남녀성별 전치 색은 Shade Eye EX의 측정치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30대 남자의 중절치가 여자보다 약간 밝은 색을 나타냈고, 측절치는 20대 여자가 약간 밝은 색을, 30, 40대는 남자가 밝은 색을 나타냈다. 20대 남자의 견치가 여자보다 약간 어두웠다.

3. 연령별 전치 색은, 20대 상악 중절치는 대부분 A1, A2, A3범위 안에 있었고, 30대 40대 상악 중절치, 모든 연령의 측절치는 대부분 A2, A3, A3.5 범위 안에 있었으며, 상악 견치는 대부분 A3, A3.5, A4범위 안에 있었다.

4. 견치, 측절치, 중절치순으로 명도가 높아졌으며, 연령별 명도 차는 없었다. ($P > 0.05$)

5. 중절치, 측절치, 견치간의 채도 차는 없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황색 채도가 증가했다. ($P < 0.05$)